

# 홍콩 사태에서 성조기 영연방기 들고 설치던 친구들 관련

M.M.T

홍콩 시위내 우파 독립파인데 이들을 '항독분자'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홍콩중문대 자체조사로 집회 참가자 전체중 극소수 수준밖에 안되고요. 이들 정당들은 홍콩 민주파가 대승을 거두었을때도 소수의 의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가에서 홍콩 항쟁 진행했을때 함께했던 홍콩학생들曰

"성조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집회할때 사진기사랑 언론에 관심받으려고 이상한 것만 잔뜩들고다니는 사람 같은 취급 받음."

대충 이런 인식입니다.

현재 홍콩 항쟁의 주도 조직인 '민간인권전선' 자체도 지도부가 온건 사회주의자+트로츠키주의자 연합이고, 대표는 트로츠키파 정당의 후신인 '사회민주연선'당의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많은 홍콩인들은 서방 언론에서 미국국기나 유니언잭 나오는게 너무 과대대표되고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홍콩인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속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논리는 재미있게도 본토인/홍콩인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하며 공공연히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계급적이고 민중적인 뿌리를 박고 시작한 운동에 우리가 지지를 철회하거나 중립적일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폐] 짚을수록 더더욱 자유의 목소리

## 한 장이 떨어지면 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한 장의 대자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사트 학교** 측의 시와 '레논 벽'이 홍콩 민주화운동을 반대하는 유학생들의 폭력적 민주적 권리와 홍콩의 자치권 보장을 외치며 모인 학생들은 어김없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에서는 자보와 플랑카드의 조직적 왜손이 벌어졌고, 국민대와 의 진실을 왜곡하는 선전물이 무단으로 유포되었으며, 심지어 한양대, 동국대, 전남대에 을 훼손하려는 수십 수백명의 유학생들이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캠페인 현장에 쳐들어와 주주의를 이 폭력적 방해까지 일어났습니다. 원대학교,

중국은 우리가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를 닫고 민중을 공유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사독재와 박근혜 정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낸 한가, 탄압으로 악화되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변단체들이 한국 학생들의 정당한 자보 게시와 연대 표명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어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경찰의 일선에서 우리와 함께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폭력적인 진압에 피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겹쳐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홍콩의 아픔에 연민하고 연대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지민들을 위해 함께 분노하고 행동합니다. 여러 학교와 변화가에 홍콩 지지 손글씨를 붙일수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투쟁하는 홍콩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국 각지의 대학가와 거리에서 레논 월과 캠페인 진행단에게 가해지는 유학생 관변단체들의 홍콩 학생들을 사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는 학생들이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장의 자보를 뚝 떼면, 우리는 그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의 힘은 언제나 독재의 탄압보다 강할것을 우리다.

## 光復香港! 時代革命!

홍콩과 함께할 사람  
정의당 청년당

